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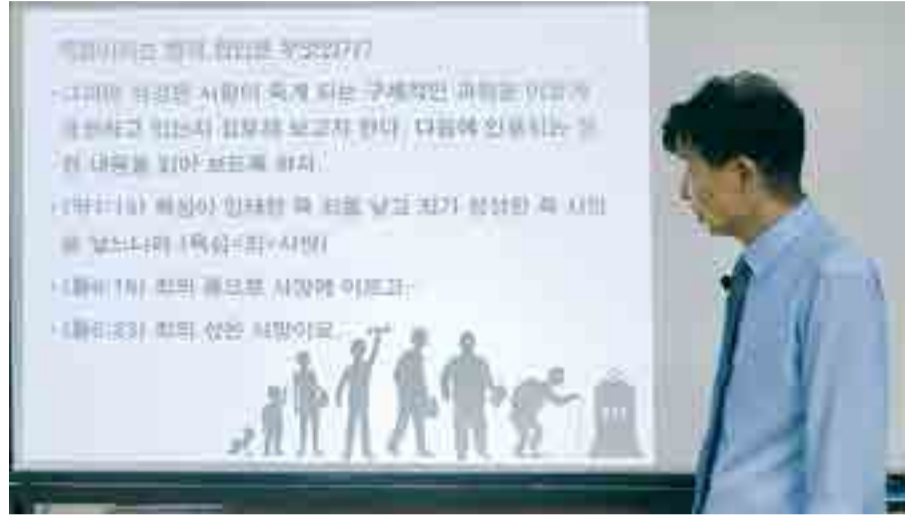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신(神)이 존재한다. 종교 경전 중 성경에는 구세주가, 불경에는 미륵부처님이, 그리고 유교적으로는 우리나라 예언서인 격암유록의 정도령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삼재(三才), 즉 세 가지 재목은 천(天), 지(地), 인(人)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동물, 식물 등의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전부 죽어야 하는 세상, 즉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다.

구세주, 미륵부처 및 정도령은 동일 존재이다

종교의 중심에 있는 각 신들, 구세주, 미륵부처, 그리고 정도령은 호칭만 다르지 동일한 존재라고 한다. 그분들은 죽을 사함을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영생의 묘약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묘약이 동일하게 이슬(露)이라는 것이다. 아래 인용되는 관련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세 경우 모두 죽음을 없애고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구세주〉 이슬: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도다.〈이



유튜브 진지아롱TV

사이사(26:19)

〈미륵부처〉 감로: 시처무사(是處無死) 즉시감로(卽是甘露) 시감로자(卽甘露者) 즉진해탈(卽眞解脱) (대반열반경 5권 여래성품)

〈정도령〉 감로해인: 진황한무구하(秦皇漢武求下) 불로초불사약(不老草不死藥) 어데잇소 흥에칠색운무중(虹霓七色雲霧中)에 감로여우해인(甘露如雨海印)이라. (격암유록)

아담이 만악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각설하고, 결국 이 세상은 태어난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다. 그렇다,

모든 생명체는 바로 사망신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사실에 대해 모든 종교의 대표 경전이 되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성경의 첫 편인 창세기에는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가 하노라' 며 경고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짝이 되는 해와는 함께 그 열매를 먹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죽는 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을 거역하였다고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에덴동산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힘드하게 하실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성경책의 존재 이유 또한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아래의 성경 구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43:10-1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중략)...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사망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틀림없다. 왜냐, 태어난 생명체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하단에서 계속)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눅20:38)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자.

〈약1:15〉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죄=사망)

〈롬6:16〉 죄의 종으로 사함이 이르고...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방금 인용된 성경 구절은 모두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근치(根治)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성경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죄가 무엇이며 사람 속의 어디에 존재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죽지 않으면 안되는 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을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고 주장해 왔을 뿐이다. 과연 사후 세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성경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욥14:10-12)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리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욥14:14)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사26:4)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눅20: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방금 인용된 모든 성경말씀은 사후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단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잘못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의 상관관계

신(神)에는 하나님과 마귀(魔鬼)의 두 가지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 두 신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요1:1-4)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었으니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요 빛은 하나님이라.

살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오 한복음은 생명을 하나님이라 명시해 놓았다. 생명이 하나님이라면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는 이치가 된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에는 늙어 죽는 자연사, 사고사 등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존재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히2:14)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히브리서는 마귀가 사망권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야고보서(1:15)에 기록된 사망의 원인이라 적시된 욕심 역시 마귀의 영이라고 밝히는 것이며, 죄 또한 동일한 결과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담

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먹어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 역시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욥31:26-27) '선악과=마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사람 속에 존재하는 마귀영이라는 것이니 마귀를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永生)'도, 종교의 목표인 '진리(眞理)의 구현(具現)'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되는 마귀 영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비로소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창세 이후 그 방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에는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니 열심히 믿으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라는 두 신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한다.

(고전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 3면에서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9> "최후의 순간까지 맡겨라"

우리가 가는 길은 틀림없이 영생의 길이요, 영생이 이루어지고 마는 길인 고심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맡겨야 되는 것이다.

세상 말로는 맡기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고로 100% 맡기는 것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눈 녹듯이 녹아서 변화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시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지루함이 없는 기쁘고 감사한 것뿐인 것이다.*

CESNUR참관기-김영숙 세계성령과학협회장 발표논문

감추었던 이슬성신과 5대공약

필자는 이번 CESNUR, 세계신종교연구 관련 국제학술회에서는 세계성령과학연구협회장으로 처음 참가했는데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쇠락과 타락, 소수종교의 종교사와 종교가의 일생, 종교의 박해와 심지어는 코로나의 불안과 공포로 새로운 미신과 같은 신종교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로불사의 비결의 말씀을 이긴자 구세주로부터 직접 듣고 수십년간 '이슬성신의 강림현상'을 연구해 온 내부 연구자로서 영생의 복을 주는 이긴자 구세주의 출현을 온 세계 반방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참가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여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장차 출현할 모세와 같은 영적 선지자는 감추었던 새 하늘의 영적만나, 이슬성신을 들고 나타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에 의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는 미래에 나타날 인류구원의 역사에서 등장할 감추었던 하늘의 양식(이슬성신)과 이긴자의 출현을 그림자로 보여 주고 예시한 역사라고 말했다. 더욱이 예언된 감추었던 만나는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승리제단 성도들은 매일과 같이 체험하며 현재도 항상 내리고 있는 맛과 향이 있는 실재하는 생명양식임을 밝혔다. 이슬성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슬성신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것이며, 그를 이긴자 구세주라고 칭한다고 말했다. 이긴자 구세주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초능력을 발휘하는 온 인류가 고대해온 사망권을 이긴 이긴자 구세주임을 학술적으로 밝혔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구세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구세주라면 세상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긴자 구세주의 <5대공약>임을 알렸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여 구원의 섭리에 맞는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고서야 <5대공약>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영생의 진리를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필자는 세계 경전 속에 감추어진 참 구세주출현의 비밀인 이슬성신과 이긴자의 권능인 "5대공약"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경전에 기록된 이슬성신의 비밀과 영적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실제, 그리고 이긴자 구세주의 자격과 심볼, '5대공약'이 실행되고 있다는 그 증거와 그 결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실제상황이 한국 일간지 신문 기사 내용들과 공식적인 정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증하였다. 앞으로 증거와 그 결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실제상황이 한국 일간지 신문 기사 내용들과 공식적인 정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증하였다. 앞으로 증거와 그 결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실제상황이 한국 일간지 신문 기사 내용들과 공식적인 정부 자료를 준비하여 참가자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해마다 발간되는 학회 영문논문집과 영생학을 학자들에게 선물했다. 필자의 논문이 어떤 학자에게는 낯선 내용으로 믿겨지지 않는 듯하였지만 이긴자 구세주가 그렇게 외쳤던 진리의 말씀과 권능 등을 세밀하게 우선 전했다. 이슬성신의 위력과 구세주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 전도에 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세계반방에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성경기록과 이긴자의 새 말씀을 통해 논문을 정리하였다.

이긴자의 출현 전하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현대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기이다. 요즘은 원숭이 두창의 확산이 세계인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 감추었던 만나와 이긴자 구세주의 출현을 드러냄으로써 필자는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의인, 신인류가 출현하여 이 지구촌을 하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격암유록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텅텅 만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자가 출현했다면 영생의 시대가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영숙 승사 / 천안제단

구세주에 배 말씀집

8

신간서적
승리신문 사주부

2021년 5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큰 판권공배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8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